KUNSU SHIM KYUNGWOO CHUN PERFORMANCE LECTURE & CONCERT BY

2019

2019. 10. 7 Mon — 10. 9 Wed TOTAL MUSEUM GERHARD STABLER

PERFORMANCE LECTURE & CONCERT

공개 프로그램

1부

19:30 - 20:15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천경우 Kyungwoo Chun 〈어피어런스 Appearance〉, 퍼포먼스, 2013-



Kyungwoo Chun, <Appearance>, performance, 2013

김태중 Taejoong Kim 〈*뜨거움! Heiss!*〉, 2 채널 비디오와 사진, 2019



Taejoong Kim <Heiss!>, 2 channel video and photograph, 05:17, 2019

〈당신의 어디에나 Dich in allen Dingen〉, 2 채널 비디오와 사진, 2019

워크숍 참가자 중 〈무제 Untitled〉, 이미지와 퍼포먼스, 2019

미에코 시오미 Mieko Shiomi 〈경계의 음악 Boundary Music〉, 1963

게르<mark>하르트 슈태블러 Gerhard Stäbler</mark> 〈연인들을 위한 퍼포먼스 Performances für Liebhaber〉, 1999

심근수 Kunsu Shim 〈책 Buch〉, 2006

존 화이트 John White 〈마시고 부는 장치 Drinking and Hooting Machine〉, 1968

20:15 - 20:30 휴식

PERFORMANCE LECTURE & CONCERT

공개 프로그램

2부 20:30 - 21:30

슈태블러와 심근수의 퍼포먼스 강연회 "변화"

예술은 아름다음에 대한 화두를 던질 뿐 아니라, 삶과 사회에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들과 동떨어져 생각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예술의 이 같은 존재 위치를 교란하고 뒤흔드는 온갖 사회적 장치를 고안해 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장치들은 감각들을 환원하고, 집단화시키며, 그 동력의 중심에는 삶이 총체적으로 되기 위한 타자성, 다양성에 기초한 거침, 낯섦 등 부정성에 대한 거부가 놓여있다. 부정성이 배제된 예술은 상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반복적 기계장치와도 같다. 반복적 기계장치는 "너"가 없는 '나'의 동일성만 제조한다. '너'의 실체는 부정성을 동반한다. 때문에 '너'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주체도 없게 된다. 예술을 통해 우린 이런 자신과 타자와의 상호관계적인 의미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술가란 바로 친숙함으로부터 이별하는 이방인과 같다. 독일 시인 릴케는 언어가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너/낯섦'이 예술의 본질이라 말한다. 슈태블러와 심근수는 이번 강연 역시 이러한 주제로 진행되며, 강연과 더불어 아래의 퍼포먼스 작품들과 음악 작품들도 실행하고 들려줄 예정이다.

게르하르트 슈태블러 Gerhard Stäbler

〈종이, 말, 죽음, 흔적 Papier. Wort, Tod, Spur〉, 2007

〈듣는 마사지 Gehörmassage〉, 1973

〈귀마개 EarPlugs〉, 1999

〈카산드라 Cassandra〉, 1996

〈저편에 drüber〉, 1972/73

〈모든 것 Total〉, 1986

〈변화 Change!〉, 2013

〈뼈다귀 Kókkala〉, 2013

심근수 Kunsu Shim

〈두번째 피부 SecondSkin〉, 2012

〈백남준에게 바치는 혼란한 비 Confused Rain á Nam June Paik〉, 2012

〈분리 Apart〉, 2000

〈삽입곡 Inserting Music〉, 1993

3인의 대화 (Trialog)

10월 9일 (수)

10:00-12:30 〈3인의 대화: 천경우, 심근수, 게르하르트 슈태블러〉 및 질의 응답



Trialog, 2009, Total Museum

WORKSHOP

워크숍 I: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10:00 - 12:00 현대음악에 있어서의 새로운 소리에 대한 개요 (심근수, 게르하르트 슈태블러)

13:00 - 15:00 현대음악 실습 (심근수, 게르하르트 슈태블러)

15:00 - 17:00 (비공개) 이미지와 퍼포먼스 1. (천경우)

워크숍 II: 10월 8일 화요일

10:00 - 12:00 현대음악 실습 (심근수, 게르하르트 슈태블러)

13:00 - 17:00 (비공개) 이미지와 퍼포먼스 2.(천경우)

워크숍 참가자.

<mark>김도영, 김</mark>지희, 김태중, 송유빈, 오철민, 이예은, 이태용, 이현우, 임성준, 정찬민, 최은주 게르하르트 슈태블러 Gerhard Stäbler

독일 남부 빌헬름스도르프 출생. 데트몰트 음악대학과 에센 폴크방 음악대학에서 작곡 및 오르간전공 (니콜라우스 아 후버 작곡, 게르트 자허 오르간 사사)을 하였으며 다수의 작곡상 수상 (영국 가르듀 기념상, 독일 앙상블리아 작곡 콩쿨, 두이스부르크시 음악상) 및 독일 니더작센주, 일본 문화성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한국, 미국, 아일랜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홍콩, 일본,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의 여러 대학에서 초청 강연 및 교환교수 역임. 행동 음악제, 전자음악제전 엑스마키나 90, 인성음악제전 목소리와 함께, 멀티미디어 현대음악 기획전 포에텍아륵스, 이어마크, 랜드마크, 세계음악제 등 주관 및 예술감독을 역임한 그는 지속적인 국제음악제 참가와 작곡가 초상연주회에 초청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방대한 분량과 다양한 장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다수의 오페라들이 -〈시몬〉,〈구원된 알베르트 E〉,〈색깔〉,〈그렇게 노래하듯이 흘러감〉 – 각각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 독일 울름 오페라하우스, 독일 뷔르츠부르크 오페라하우스의 위촉으로 작곡되었으며, 초연되었다. 다수의 관현악 작품들이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예술재단 (Kunststiftung NRW), 뷔르츠부르크 오페라하우스, 쾰른의 아흐트브뤼케 페스티발의 위촉으로 작곡, 연주되었다. 2017년 심근수와 함께 우루과이 국립음악대학의 교환교수를 역임했으며, 2018년에는 미국의 다수 대학교에서 초청강사 및 워크숍, 작곡 마스터 클래스를 지도했다. 2018년 초 그는 또한 미국 랙대일 재단 장학생으로 미국에 체류했다. 그의 작품을 다루는 다수의 책이 출간되었으며, 2015년 미국의 음악학자인 폴 아티넬로의 〈삶, 반대, 도전 live, the opposite, daring 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그는 역시 심근수와 함께 2000년 - 2010년 그리고 2015년 이후 현재 독일 두이스부르크의 현대음악센터인 이어포트를 공동 감독하고 있다. 2018, 2019년에는 심근수와 함께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예술재단의 후원으로 터키에 수개월간 체류하였다.

"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의 긍정사회는 부상의 부정성을 점점 '구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지각의 영역에서도 이런 부정성을 점점 더 회피합니다. 이제는 '좋아하다(like)'가 지각 영역을 지배합니다.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도 포함해서)이란,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언제나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변화의 경험(erfahren)입니다. 우린 스스로 상처를 입히지 않고는 다른 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같은 것만 반복됩니다. 감수성이란 상처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상을 당한다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의 가장 진실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진실은 없습니다. 더구나 지각이란 없습니다.('지각하다'의 독일어는 wahrnehmen이며 이 말을 직역하면 '진리를 받아 들이다'라는 뜻이다). 나아가 한병철은 '동일성의 지옥 속에는 진리가 없다'(『상처의 미학』)고 말합니다."

– 슈태블러의 강연 내용 중에서



게르하르트 슈태블러 Trialog, 2009, Total Museum

기획.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신보슬 코디네이터. 김세연 진행. 윤지현. 이하은 사진·영상. 김도영·정영돈 기술지원. 미지아트

심근수 Kunsu Shim

<mark>부산에서 태</mark>어난 심근수는 연세대학교, 독일 슈투트가르트 음악대학과 에센 폴크방 <mark>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mark>공하였다.(헬무트 라헨만 및 니콜라우스 아 후버 작곡 사사.) 국내외에서 다수의 작곡상 수상 (서독일방송 포럼 데어 융에 콤포니스텐 작곡상 등) 및 장학생으로 선발 (미국 랙대일 재단 및 제라시 재단, 독일 니더작센주, 베를린 예술원, 일본 문화성재단 등) 되기도 한 그는 최근 아르헨티나 마뉴엘 드 팔라 음악 대학, 미국의 북서 대학, 시카고 대학, 북동 대학, 덴턴 대학, 노르웨이 그리그 음악 대학 등에서 강연회 및 마스터 클래스를 가졌으며 노르웨이 오슬로 울티마 현대음악제, 보레알리스 음악제, 영국 에딘버러 소닉 퓨전 현대음악 페스<mark>티벌, 독일 니더라인</mark> 음악비엔날레, 일본 동경 뮤직 도큐멘트, 독일의 오프닝 현대음악제 등<mark>에서 작곡가</mark> 단독연주회를 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게르하르트 슈태블러와 다양한 음악회들을 주관하고 있으며 독일 빌헬름 렘부크르 미술관의 상주 작곡가로서 일해왔다. 2012년에는 독일 뒤셀도르프시 후원으로 존 케이지 탄생 100주년 대규모 기념음악회를 공동기획하고 감독했으며, 뒤셀도르프의 벤라트궁에서 현대음악 시리즈, 뒤셀도르프의 현대미술관들인 쿤스트할레, NRW 포럼, 쿤스트 잠믈룽 등에서 매년 다수의 현대음악 연주회를 기획하고 있다. 2017년에는 우루과이 국립음악대학의 교환교수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다수의 관현악 작품들이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예술재단 (Kunststiftung NRW), 에센 필하모니, 뷔르츠부르크 오페라하우스 및 뷔르츠부르크 대성당 등의 위촉으로 작곡, 연주되었다. 최근에는 뒤셀도르프의 하이네 기념관에 의해 그의 작품세계를 다루는 책 『나직하게, 자유롭게 (Leise, Frei)』와 역시 그의 음악세계를 다루는 소책자인 〈단편집〉이라는 시리즈 기획물이 독일 파우 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현재 독일 두이스부르크의 이어포트 현대음악센터에서 슈태블러와 공동예술감독으로 있으며 그의 작품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2018, 2019년 슈태블러와 함께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예술재단의 후원으로 터키에 수개월간 체류하였다.

> "음악은 질문을 던진다. 음악은 창가에 꼼작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이나 불어 있는 한 마리 나방이 어떤 순간에 획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사라진다. 음악은 하나의 사건이다. 슈베르트의 지속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사건, 즉 어떤 것을 지각함으로 정신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건이란 만남이다. 동상들의 숨결, 너 시간, 무엇보다도 너 낯섦과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우린 더이상 한곳에 머무는 거주자가 아니라, 아무 곳에서도 거주할 수 없이 내버려져 실향민이 된다. 친숙함으로부터의 이별은 성스럽다.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의 이방인이다. 음악이 그에게 건네 주는 말은 침묵이다."

<mark>- 심근수의 강연</mark> 내용 중에서



심근수,게르하르트 슈태블러,천경우, 2009 CCA-Centro Cultural Andratx, Majorca

천경우 Kyungwoo Chun

서울에서 태어난 천경우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과 독일 부퍼탈 대학에서 사진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수학하였다. 그는 그를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독창적인 사진 작품들과 더불어 2000년대 초반부터 익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실험적인 퍼포먼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여러 나라<mark>에서 실현해 오고 있다.</mark> 덴마크 문화부 DIVA 프로그램 초청작가로 머물며 프로젝<mark>트와 전시(Being a Queen,</mark> 2007)를 가졌으며 독일 쿤스트할레 괴핑겐 (Response, 2012), 폴란드 <mark>라즈니아</mark> 현대미술관 (Thousands, 2010, 그단스크), 영국 리버풀 비엔날레(200<mark>8, 2010</mark>) 타임스 스퀘어 에서의 퍼포먼스(Versus, 2011, 뉴욕), 모스크바 비엔날<mark>레(2015</mark>) 등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mark>, 영국, 미국, 등에서 다수의</mark> <mark>전시와 퍼</mark>포먼스를 열어왔다. 작곡가 게르하르트 슈태블<mark>러, 심근수와 함께</mark> <mark>공동작업을 지속해온</mark> 그의 작품들은 휴스턴 현대미술관, <mark>암스테르담 하우스 마르세이</mark> <mark>사진미술관, 덴마크 오덴제 사진</mark>미술관, 헤이그 현대미술<mark>관, 한미사진미술관,</mark> 프랑스 Macval 현대미술관, 함부르크 예술공예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 2015~2016년 프랑스 현대미술관 Macval의 초청으로 청소년들, 거리 환경미화원들과의 프로젝트와 더불어 개인전을 가지기도 한 그는 최근 성<mark>곡미술관에서 지난 15년간 인도, 중국</mark>, 프랑스, 스페인 등 10여 개국에서 실현한 퍼포먼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다. 독일 Hatje Cantz 출판사에서 『Monograph』(2005), 『Thousands』(2008) 출판과 더불어 국내외에서 여러 작<mark>품집이 출</mark>간되었다. 오는 11월 베를린 에프레미디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앞둔 그<mark>는 작품활동과 더불어 현재</mark>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교수로 재직 <mark>중이며 순수사진을 담당하고 있다</mark>.

> "천경우의 작품은 사람이 서로 살아가는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휴머니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서구 철학과 동양 철학의 생각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서로 다르고, 반대되며 약점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에게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모순된 상태 속에서 풍부함으로 파악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천경우가 이해하는 예술의 과제는 우리의 지각 능력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여기게 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손을 잡는 몸짓 하나에서 시작한다."

- 잉고 클라우스, 독일 브레멘 베저부르크 현대<mark>미술관</mark> 큐레이터

게스트 아티스트 김태중 Taejoong Kim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및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시각예술 석사과정을 마친 김태중은 Space 776(뉴욕), 독일문화원(서울), Laznia - CCA(그단소크)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Foam 사진미술관(암스테르담), The Jewish Museum(뉴욕), Darb 1718(카이로), 한미사진미술관(서울), 이응노미술관(대전) 등에서 전시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사진의 새 가능성을 탐구하는 영상 설치 작업을 지속해 오면서 선명한 규칙과 모호한 상황의 충돌을 숲이라는 대상을 통해 실현해온 작가는 사진적 공간의 확장을 실험하고 있으며 게르하르트 슈태블러의 동명 음악인 〈Heissl〉와 심근수의 〈Dich in allen Dingen〉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사진과 영상작업을 이번 프로그램에 발표한다. 실험적인 젊은 사진가를 지원하는 네덜란드 Foam Talent 2016에 선정되었던 그는 현재 뉴욕에서 활동 중이다.

함께하는 강연 퍼포먼스로 기획되었다. 3인의 공동작업은 이번에 자신들의 작품과 경험들을 젊은 작가 지망생들과 나누는 3일간의 워크숍과 관객과 퍼포먼스와 음악 작품들을 함께 실행하고 들려준다. 1989년 첫 만남과 교류의 시작 이후 올해 30년을 맞는 이 집단화되고, 타자성, 낯섦 등이 거부당하는 오늘날 예술의 위치와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강연 도중 그들의 퍼포먼스 작품들이 연주된다. 2부에서는 슈태블러와 심근수가 "변화"라는 주제로 퍼포먼스 강연회를 가진다 통해 사진적 공간의 확장을 경험하게 한다. 더불어 게르하르트 슈태블러, 미에코 시오미, 심근수, 존 화이트 등의 주제로 10여명의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천경우의 퍼포펀스 6년만에 다시 토탈미술관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번에 열리는 TRIALOG 2019는 "보기, 듣기, 생각하기"라는 문화비축기지 등에서 진행되었고, 2009년에 토탈미술관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여 중심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2009년, 2013년 토탈미술관, 금호아트홀, 독일문화원, 2018년 〈Appearance〉가 관객과 함께 이루어지며 게스트 아티스트 김태종은 음악을 바탕으로 한 새 영상 설치 작업을 TRIALOG는 천경우, 심근수, 게르하르트 슈태블러의 음악, 영상, 퍼포먼스 공동 프로젝트로 그동안 독일을





Book by Kyungwoo Chun, Kunsu Shim and Gerhard Stäbler bild.klang.los 이미지.소리.없음

<u> "이미지소리.없음"(bild.klang.los)이 독일 Pfau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2009)</u>

1989년 첫 만남 이후 천경우, 게르하르트 슈태블러, 심근수의 20여 년 공동 작업을 기념하는 대화, 기록집

Ministerium für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Kultur und Wissenschaft



OF CONTEMPORARY ART

